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14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담 당 자	• 평화교류담당 이상화 ☎440-4311 • 담당자 최대리사 ☎440-431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넘실대는 파도에 담아 인천시, 강화 망향(望鄕)배 시범 운항

- 10.14.(목)~15.(금), 인천거주 실향민 어르신 참여 -
 - 강화 석모도(석포리 선착장) ↔ 교동대교 인근 수역까지 항행 -

인천시가 “강화 망향배 시범운항”으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북이 함께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실향민 어르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앞으로 한강하구에 정전협정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민간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 망향(望鄕)배 시범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4일(목), 15일(금) 양 일간 진행되는 시범운항은 **인천관광공사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실향민 어르신 각 25명 내외가 참가해 강화 석모도(석포리 선착장)를 출발해 그동안 배를 통한 접근이 통제됐던 교동대교 인근 수역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특히, 14일(목) 운항에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및 최영준 통일부 차관,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강화 망향(望鄕)배 시범운항’을 축하하고, 참석한 실향민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운항하는 동안 선상에서는 이시우 사진가의 ‘한강하구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선상 해설과 최경만 피리명인 및 유지숙 서도소리 명창의 공연, 참가자들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의 바람개비’ 돌리기 행사도 진행된다.

운항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중계된다. 당일 10시부터 유튜브 검색창에 ‘강화 망향배 운항’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통일부·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준비한 행사로 한강하구가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 삶에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함께 만나 서해로 흘러나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당시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된 중립수역이었음에도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현재까지 민간선박의 항행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10.4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북측과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하에 한강하구 수역이 민간에 개방되어 또 하나의 평화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홍보 포스터

※ 관련 사진은 13시 전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

<서해평화특별기간 행사>
잊혀진 공간,
한강이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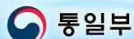
강화 망향배 운항

2021. 10. 14.(목) ~ 10. 15.(금) 10:00~11:30

운항코스 : 석모도 석포리선착장 ↔ 한강하구 인근

행사진행 이자연 (아나운서)
선상해설 이시우 (사진가)
선상공연 최경만 (피리명인), 유지숙 (서도소리명창)

공동 주최



통일부



인천광역시

공동 주관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



YouTube

강화 망향배 운항

